

KIA 타이거즈 DEPTH CHART

※()는 부상 또는 백업선수



- ▶ 2016년 정규시즌 성적 : 5위=70승73패1무(승률 0.490)
- ▶ 2016년 삼성전 성적 : 8승8패0무(승률 0.500)
- ▶ 역대 개막전 성적 : 13승19패1무(승률 0.406)



준비된 전력, 예상만큼 하면 두산 대항마 최형우 가세로 KBO 역대 6번째 팀 200출런 '157km' 한승혁, 최고의 불펜투수로 성장



헥터·양현종의 200이닝 투구 후유증 4·5선발 물음표, 시즌 끝까지 못 댄다면? 임창용·한승혁 등 뒷문 동시 붕괴



헥터(KIA)

대구 개막전 선발투수 비교

페트릭(삼성)

2016상대	2016상대	2017시범	구분	2016시즌	2016상대	2017시범
31	5	2	경기수	-	-	2
15-5-0	3-1-0	1-0-0	승-패-세	-	-	0-1-0
206 2/3	27 1/3	6	이닝	-	-	8
88(78)	17(16)	2(2)	실점(자책)	-	-	7(5)
3.40	5.27	3.00	발어율	-	-	5.63
139	15	3	탈삼진	-	-	3
57	7	1	4사구	-	-	6
7	1	1	피홈런	-	-	0
1.27	1.57	1.00	WHIP	-	-	2.13
0.268	0.319	0.238	피안타율(전체)	-	-	0.394
0.254	0.258	0.000	피안타율(좌타자)	-	-	0.375
0.279	0.404	0.333	피안타율(우타자)	-	-	0.400

삼성 라이온즈 DEPTH CHART

※()는 부상 또는 백업선수



- ▶ 2016년 정규시즌 성적 : 9위=65승78패1무(승률 0.455)
- ▶ 2016년 KIA전 성적 : 8승8패0무(승률 0.500)
- ▶ 역대 개막전 성적 : 19승15패0무(0.559)



이승엽 마지막 은퇴무대는 '가을야구' 45만 달러짜리 페트릭 100만 달러 활약 이원석-유규민 듀오의 알짜 FA 증명



국민타자의 쓸쓸한 퇴장 레나도+페트릭=합작 6승 하이파이브만 하다 끝난 김한수 감독

최형우 100억 자존심이나?...이승엽 멋진 이별 신호탄이나?

10년연속 고객께서 주신 1등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NB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NBCI) 아웃도어 부문 10년 연속 1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

THE NORTH FACE | PyeongChang 2018

KIA-삼성 개막전 관전포인트

대권 노리는 KIA-부활 꿈꾸는 삼성 영원한 영호남 라이벌 올핸 더 치열 헥터-페트릭 선발 매치, KIA 한수위

전통적인 영호남 라이벌, 삼성과 KIA의 격돌이다. 최근에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지역 맞대결에 대한 의미가 조금 희석됐지만, 두 팀은 다르다. 프로야구가 태동한 1980년대부터 라이벌 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핸는 최형우가 삼성에서 KIA로 이적하면서 개막 맞대결에 흥미를 더했다.

두 팀의 2017시즌 예상은 상이하다. 삼성은 부활을 꿈꾸는 '몰락한 왕조'로, KIA는 대권에 도전하는 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맞대결은 또 다른 얘기다. 지난해 양 팀 상대 전적은 8승8패. 역대 개막전에서 KIA는 13승19패1무로 LG에 이어 두 번째로 승률이 좋지 않았다. 반면 삼성은 19승15패로 개막전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푸른색 동지, 이젠 적으로

대구는 삼성에서 KIA로 이적한 최형우와 은퇴 시즌을 시작하는 삼성 이승엽의 맞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한때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중심타선을 이뤄 통합우승을 일궈낸 동지였다. 그러나 최형우가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고향팀 KIA로 이적하면서 적으로 만나게 됐다.

최형우는 FA 1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높은 금액만큼 그를 향한 KIA의 기대는 크다. 너무 큰 기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선

수 스스로는 자신감이 충분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의 힘을 믿어서다. KIA에 최형우가 있다면 삼성에는 '국민타자' 이승엽이 있다. 그는 시간이 흘러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무대로 복귀한 뒤 5시즌 동안 118홈런을 때려내며 KBO리그 역대 통산 최다홈런, 한·일 통산 600홈런 등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을 세웠다. 게다가 그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다. 선수로서의 마지막 해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처럼 둘에게는 반드시 잘해야 할 각자의 이유가 있다. 알갭게도 개막전부터 성사된 맞대결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선발 매치업 헥터 VS 페트릭

KIA 헥터 노예시는 지난해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다. 31경기에 선발 등판해 15승5패, 방어율 3.40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삼성을 상대로도 강했다. 5경기에 등판해 3승1패를 기록했다. KBO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던 시즌 초반 삼성을 상대로 대량실점을 하면서 방어율(5.27)이 치솟았지만 이후에는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KIA 김기태 감독은 개막전 선발로 주저 없이 헥터를 뽑았다.

삼성 개막전 선발은 2선발 재크 페트릭이다. 당초 앤서니 페나도가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범경기 도중 허벅지를 다쳤다. 복귀 시점은 미지수다. 레나도가 돌아올 때까지 페트릭이 버텨줘야 한다. 페트릭은 시범경기에서 좋지 못했다. 16일 대구 LG전에서 4이닝 3실점, 23일 잠실 두산전에서는 4이닝 4실점했다. 2경기 방어율이 5.63으로 높았다. 이제 더 이상 연습할 시간이 없다. 페트릭이 위력적인 공을 던져줘야 삼성 승통이 트인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한수랑 하이파이브 하실 분~”

김한수 감독, 파울라인서 개막 이벤트 경기 후엔 응원단·팬들 함께 클럽댄스

김한수 신임감독과 팬들의 특별이벤트 '한수 율타리' 첫 하이파이브로 2017시즌 막을 올린다.

삼성은 올 시즌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홈게임 동안 3루측 익사이팅존 1열 14석을 '한수 율타리' 좌석으로 지정하고 경기 개시 직전 김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익사이팅존의 1열은 파울라인에서 불과 5~6m 거리여서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좌석으로 유명하다. 감독이 직접 나서 팬들과 소통하는 그 첫 번째 걸음을 31일

개막전에서 내디딘다.

식전행사는 삼성 치어리더 '블루팅커스'의 개막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뒤 올 시즌 팬들과 함께 사자군단을 응원해줄 '사자 ABR(Air Balloon Robot)'이 첫선을 보인다. TV예능프로그램 '히든싱어' 입창정 편이 우승자로 유명한 조현민씨가 애국가를 부르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구자로 나선다.

경기 후에는 삼성은 지난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금도는 블루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 결과를 떠나 응원단과 팬들이 함께 클럽댄스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

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